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예산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성수품 17만톤 쏟아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 나섰다
2024 파리패럴림픽 개막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쉬운 길 가지 않겠다
4대 개혁 절체절명 과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0만 국민이 선택한

1석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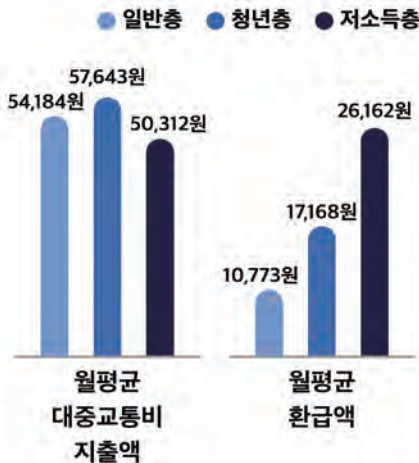
K-패스

효과 1

교통비 절감

- ✓ 월 평균 56,005원 이용
- ✓ 월 평균 15,060원 환급
(1년 기준 환급액 180,720원)

* 시행 2개월간(5~6월)



효과 2

탄소 저감

- ✓ 탄소 20,712톤 감축
- ✓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 식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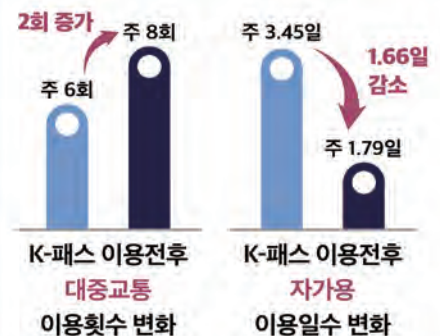
* 시행 3개월간(5~7월)



효과 3

대중교통 활성화

- ✓ 대중교통 이용횟수
 - ▶ 1주일 기준 2회 증가
(평균 6회→8회)
 - ▶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
-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일수
 - ▶ 1주일 기준 약 1.66일 증가



전국 방방곡곡 언제 어디서나-

K-패스 환급 비율

- ✓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환급 비율 책정

일반	청년	저소득
20%	30%	53%

환급비용 지급 기준

- ✓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

혜택이 두루두루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K-패스 바로 신청하세요!



korea-pass.kr

더 공감

손주는 다음 생에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애, 승연이 다음 달에 애 낳는단다! 개가 외국에 사니까 그걸 이제야 알았지 뭐니?” 친척 언니가 아기 엄마가 된다는 소식에 “잘됐다!” 하는 축하보다 “힘들어서 어떡해!” 하는 걱정이 먼저 튀어나왔다. 나보다 꼭 한 살 많은 언니는 올해로 마흔하나다. 사십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걸핏하면 비실비실 앓고 있기에, 안과에 갔다가 이비인후과에 들렀다가 산부인과까지 방문한 날 그러한 전화를 받았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산과’가 아니라 ‘부인과’지만 뭐 어쨌건 그러했기에, ‘내 한 몸 검사하기도 이렇게 벅찬데 언니는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염려가 됐던 것이다.

나의 말을 잘못 이해한 엄마가 별걱정을 다 한다는 듯 피식 웃었다. “애 키우는 게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낳으면 엄마가 다 봐줄 테니까 일단 하나 낳아봐!” 엄마의 어이없는 제안에 콧방귀가 절로 나왔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남편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엄마는 나를 무슨 성모마리아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하기가, 남편이 없는 나도 나지만 남들 다 있는 손주가 없는 엄마 역시 마음 한편이 허전하기는 할 테지.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제 뜻대로만 흘러가는가. 나는 “조카딸도 딸이니까 승연 언니가 아기 낳으면 손주 삼아 봐주면 되겠네!” 하는 말로 대화를 끝내려 했으나 엄마는 남의 손주가 아닌 ‘내 손주’가 갖고 싶다고 연신 말했다.

엄마의 ‘내 손주’ 타령은 며칠 내내 이어졌다. 철없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끈질기게 조르는 것처럼 말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가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안 그래도 몸이 축나 힘이 들어 죽겠건만 자꾸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들들 볶아대니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짜증을 삼켰다.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 나를 낳은 엄마.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어린 나에게 “다음에”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엄마.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내 앞에서는 늘 웃음 지었던 엄마. 엄마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이제는 그대로 갚을 차례니까.

오늘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누구는 결혼을 했네, 누구는 아이를 낳았네, 누구는 글썽 셋째를 가졌네, 하는 이야기 끝에 더 늦기 전에 하나 낳아야 하지 않겠냐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왔다. 엄마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나는 대답했다. “다음에.” 됐다는 말도 아니고, 싫다는 말도 아닌, 다음이라는 대답이 생겼는지 “뭐라고?” 하며 엄마가 반문했다. “지금은 어렵고 다음에. 다음 생에는 내가 손주 하나 꼭 낳아줄 테니까 좀 기다리셔!” “애,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니?” 노발대발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이참, 엄마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이게 아닌가? K



이주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다.
어쩌다 보니 맞춤법을 주제로 한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국어사전 속에서 온종일 헤매는 일이 싫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체질인 듯하다.

5200만 자 팔만대장경에 새긴 염원

고려시대에 만든 인류의 대표적인 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은 목판인쇄 기술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걸작이다.

수년에 걸쳐 판각한 초조대장경 목판은 몽골군의 2차 침입으로 불타고 신라의 보물 중 하나인 경북 경주시 구항동의 황룡사 9층 목탑도 몽골군에 의해 소실됐다. 불심으로 몽골군을 몰아내자는 생각으로 온 나라가 마음을 합쳐 15년(1236~1251)에 걸쳐 다시 팔만대장경을 목판으로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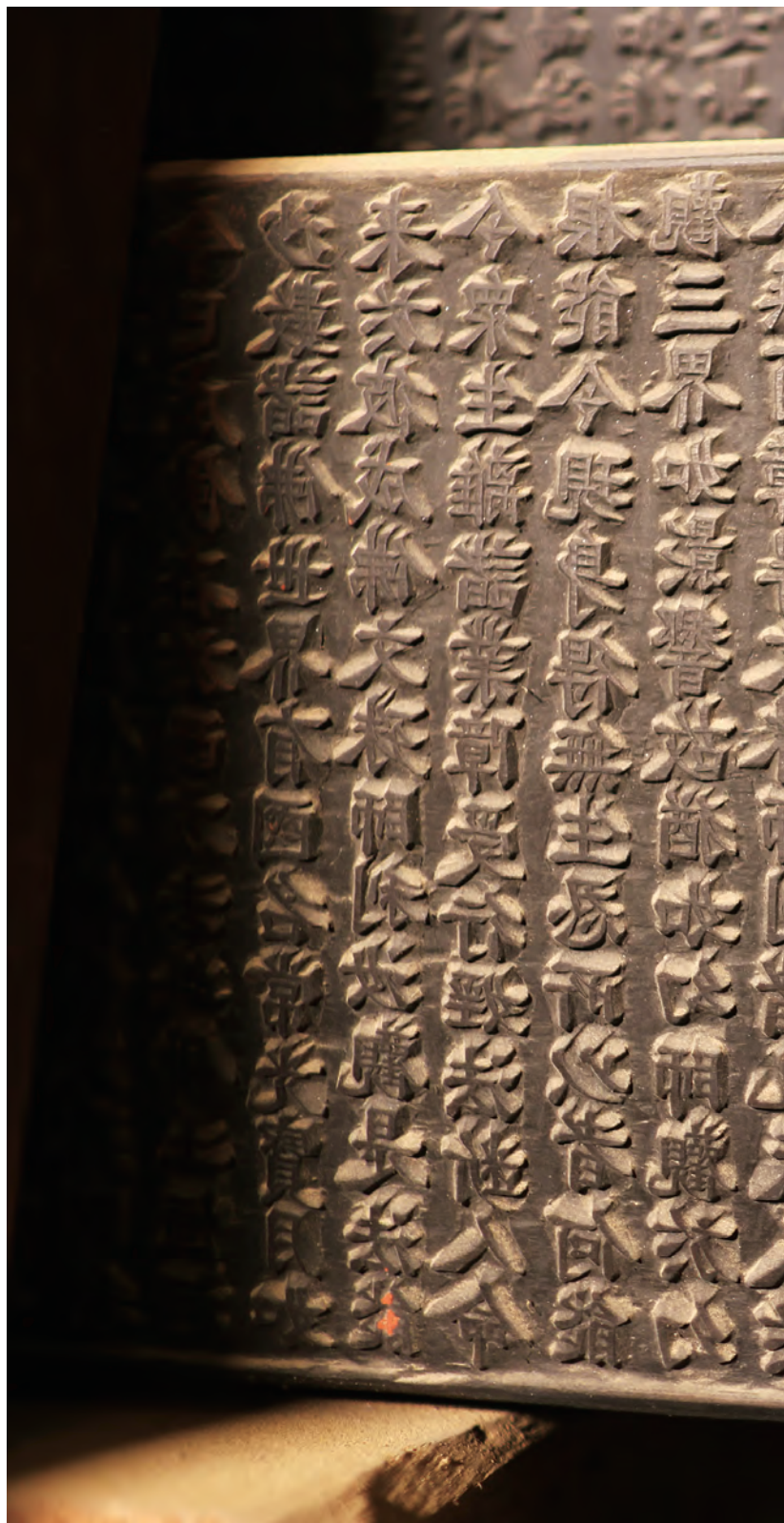
이미 13세기 초부터 금속활자로 인쇄를 하던 고려인들은 고대 목판 인쇄의 절정을 보여줬다.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 등 세 가지 불교의 가르침을 8만 1352개 목판에 기록한 팔만대장경은 5200여만 자에 이른다. 그 당시 인류의 모든 지식을 기록한 인류유산이다.

팔만대장경 목판을 가까이서 관찰하면 목판 중 일부는 옷칠을 해서 레이저로 깎은 금속활자처럼 한자 글씨의 각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 팔만대장경 목판의 신비 중 하나는 필사로 쓴 글을 판각한 서체들이 마치 기계로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5200여만 자가 완벽한 서예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인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팔만대장경의 글씨는 사람이 쓴 육필이 아니라 신필(神筆)이다”라고 말했다. **K**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9.02-08

No.770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9월 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이주윤

'손주는 다음 생애'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5200만 자

팔만대장경에 새긴 염원

06

커버스토리

“쉬운 길 가지 않겠다 4대 개혁 절체절명 과제”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렸다”

정책 돋보기

14

지금 용산은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 정부
정주여건 마련 위해
교육·의료체계 갖춰져야”

18

알쓸정채

추석 연휴 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외

22

정책 돋보기

‘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도입
학교 디페이크 대응, 긴급 TF가 나선다

26

돈 되는 정책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27

정책 플러스

식사비 한도 이제 5만 원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 첫 인상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06





42

46
정책현장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전 세계에서 된다

48
어피티가 본 MZ 생각
"팬덤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51
공감해보니
혹시 나도 우울증?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로
자가검진 해보니

54
작은 영웅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뭇즈' 상품기획팀
김미경 팀장



58

58
여행이 있는 주말 로컬100 따라가기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62
함께 즐기다
'궁, 바퀴를 달다' 외

64
독자 공감

28
포커스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예산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회복 빠르게

38
2024 파리패럴림픽
웰컴 투 파리!
감동 드라마가 다시 시작됐다

41
이 주의 키워드
엠폭스

42
K-피플
몽골, 아프리카에 의술 심는
김한겸 병리 전문의



38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인구문제 해결과 4대 개혁은 불가분의 관계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4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에서 꼽은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을 정주 여건으로 꼽았다.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키는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이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의 중증·응급 필수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비상사태를 벗어나 저출생을 극복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돌봄을 지원하는 ‘퍼블릭 케어’를 철저히 해나가는 등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의료·노동·교육·연금개혁 등 4대 개혁과 인구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과실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성과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7월 17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탐코리아가 선정된 것을 알리고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결실도 맺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률도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국가재정은 더 튼튼해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돼가고 있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감 민생이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윤 대

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약자복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해온 사실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는 점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져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들고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113개국과 197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외교지평도 글로벌 차원으로 넓어졌고 다루는 어젠다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효정 기자

연금 개혁

지속가능·세대 간 공정·노후 보장 원칙 “국가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해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연금개혁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 등 5600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안정장치를 통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크게 늦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다.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데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임기 내에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킨다.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동안정장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연령 등 모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로 설계방식에 따라 작동원리가 다르다.

의료 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 “5년 간 최소 10조 원 투자”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27년 만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4567명으로 1509명 증원돼 인력 확충 방안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개혁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중 첫 번째로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수련 선진화 방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

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뀌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의료개혁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전면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김효정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분야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담당해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행위별 수가제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교육 개혁

“기회의 사다리 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돌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를 설명하고 개혁의 세 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정부는 ‘퍼블릭 케어’의 안착을 위해 힘을 전망이다. 퍼블릭 케어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공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늘봄학교도 퍼블릭 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8월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 모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 34만 8000여명 중 80%에 달하는 28만 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먼저 도입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하며 도입된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 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교육개혁은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며 진행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벌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유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유보통합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유치원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일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메타버스·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노동 개혁

“불합리한 관행·낡은 제도로는 역동 경제도 근로자 보호도 어려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채용 관행도 바로잡고 있다. 대규모 불법파업도 줄어들어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했고 노사법치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추진될 노동개혁의 첫 번째 방향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

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정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노동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미조직 근로자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8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 극복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 청년들에게 되찾아 주겠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던 것을 짚으며 “3대 핵심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발표한 저출생 대응대책 151개는 크게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마음껏 육아휴직 등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지급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육 분야에 대해서는 0~11세 유·아동에 대한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4대 개혁이 곧 저출생 극복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인구위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과잉 경쟁 문화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역시 교육·의료개혁 등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X] 김효정 기자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 2주(14일)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육아기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일 두 시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 정부 정주여건 마련 위해 교육·의료체계 갖춰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

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5년도 예산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날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20조 8000억 원)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최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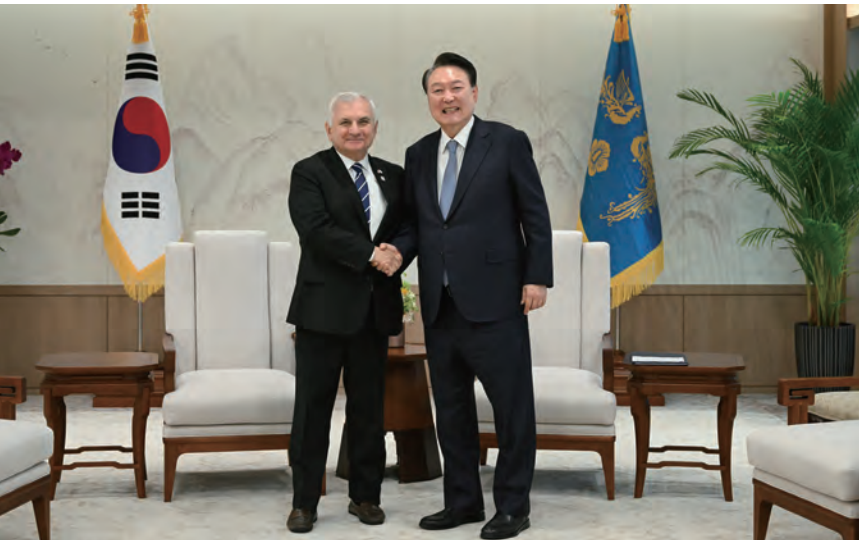
국회에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예 사이버 인력 양성·보안기술 개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사이버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 참석해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초청해 사이버범죄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이버 전략을 토대로 최정의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에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다크웹 추적 등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지금은 안보 문제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시대”라며 자유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에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900일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가 10개월 이상 이어지며 확전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확신을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나토와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1주년을 맞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 간 핵·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확실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하나둘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하나둘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이어 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한·미·일 협력체계 발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리드 군사위원장에 게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의 중진 상원의원으로 2021년 2월부터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양국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리드 위원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군사위원장으로서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 협력, 그리고 반도체와 쿼터 등 첨단분야에서 한미 양

국 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리드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는 구축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X]

강정미 기자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8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추석 물가 대응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추석 연휴에도 의료공백 없게

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한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8일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KTAS 1~2)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 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전체 응급환자의 15~20% 수준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응급실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높인다.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의관 및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가산을 인상(150%→200%)하고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 동안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하고 군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설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부동산거래 댄 ‘전자계약’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http://irts.molit.go.kr>)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6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썼으나 점차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사용이 확산됐다.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네 배 증가했다. 만족도도 높다. 7월 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8.6점을 기록했다. 충북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신

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최대 5년간 소득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의 ‘모두 채움 서비스’의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을 누른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

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8월 말까지 신고했다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로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국내 약 135만 명으로 추정되며 예상환급금은 1792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사진 뉴시스

내 주변 위험상황 모바일로 안내 더욱 쉽고 빠르게

앞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내 주변의 재난·안전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위기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재난·안전 서비스’를 통해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착수보고회’에서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

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4종의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먹는 물 더 안전해진다 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앞으로는 우리가 먹는 물이 더 안전해진다. 환경부는 8월 26일 먹는 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5년 2월 21일부터다.

개정안은 우선 먹는 물과 관련된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기술 인력에게 1년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시스

먹는 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했다. 먹는 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 또한 현행 1년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했다.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화했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 주기를 간소화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8월 27일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소상공인 등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납부기준을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해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

했다.

또한 사적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 출퇴근 편해진다

9월 1일부터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가 운행된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4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

이 매일 왕복 4회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이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만 19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해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9월부터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가 운행되면서 동탄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 사진 뉴시스



해외직구 젤리·사탕 구매 주의하세요! 마약류 성분 검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젤리와 사탕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구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돼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특례보증 지원 최대 30억 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

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

박지현 기자

‘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도입 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시장 패러다임 대전환

임대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놔다. 그간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료 규제도 싹 풀었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다르게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주거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후속대책이다.

국내 임대차시장의 공급률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차지한다.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비등록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는 높은 재고 변동성에 따른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를 낳았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7.1%보다 높은 8.1%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상대적으로 수요

가 높은 도심지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규제 적용받으면 정부지원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핵심은 임대료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이다. 이는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를 받는다.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 만일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세분화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대신 별도의 정부 지원은 못 받는다. ‘준자

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용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용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도 크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20년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

박지현 기자

장기임대주택 공급 방안 주요 내용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 제공

사업모델 유형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임대보증 가입·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제한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 임대료 규제 모두 폐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 지원	임대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5% 상한 적용	
	저리 기금 용자,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95%)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 부여 기금출자·용자 등 공적지원 확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 활성화

보험사 임대주택 투자 허용
장기임대주택보유 시 지급여력비율 20% → 25%로 완화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포괄양수도 허용

자료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8일 열린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 나선다 179건 수사 의뢰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식의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2024년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8월 27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다. 학생 피해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8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78건이다. 피해 건

수 가운데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리는 경우가 있고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신고했을 경우 집계되지 않아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

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구성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했다. TF는 상황총괄팀, 학생 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 윤리대응팀, 현장소통지원팀, 언론동향팀 등 6개 팀이다.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원의 피해 사안을 처리하고 이들의 심리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클래스’, ‘위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 첫 번째)이 8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료·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도 나선다.

직간접 피해를 본 교원의 경우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피해 사안을 신고받고 심리·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8월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9월 중 여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대책회의를 연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하고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관련 아동·청소년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경찰청(112)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삭제요청

자동화 추진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을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

합성·편집물 수동 판별

- 딥페이크 여부 식별 불가
-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합성·편집물 탐지 불가

수동으로 삭제요청 및 조치여부
모니터링·재요청

개선(안)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요청 “자동화”추진

- 피해영상물 의심 이미지 **자동모니터링**
 - AI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로 딥페이크 여부 판별
- 피해자 이미지 기반 **자동 모니터링**
 - 변형된 피해자의 이미지 식별

삭제 요청 자동 통보

자료 여성가족부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신고·지원

•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방문) 117센터 방문

• 학교전담경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자료 교육부

디지털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8월 2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과 신 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허위영상물 탐지와 추적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미지 합성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불법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K]

서경리 기자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저작권 등록? 초상권 침해? 창업기업 궁금증 무료 법률 자문 받으세요!

정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해요.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진행 절차

신청
상담희망 내용 등록
창업기업



선정
적합성 검토
창업진흥원



전문가 선택
자문위원 선택
창업기업



업무 수행
계약서 체결, 자료 요청 등
창업기업·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자문위원에게 지급
창업진흥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른 사람의 요리법을 그대로 활용해 콘텐츠로 만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위치기반 카페 큐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점주 동의 없이 카페 정보를 등록해도 될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같이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받는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이용해보세요. 스타트업이 궁금해 하는 초상권,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법적 궁금증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자문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기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혹은 예비창업기업이에요. 한 회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창업진흥원이 법률 자문비를 지원해줘요.

사업 내용은 크게 국내 법률 지원과 해외 법률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국내 법률 지원은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계약, 투자, 법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줘요.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해외 법률 지원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 대상이에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 진출을 준비하던 트럭기업 A사는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현지 로펌의 자문 의견과 현지 법령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법무법인의 소개로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니 도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K-스타트업 창업 지원포털(k-startup.go.kr)의 ‘사업소개-법률지원’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 신청을 하면 돼요.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한 명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포털의 ‘법률지원-주요 상담사례’ 메뉴를 참고해보세요. 창업기업이 자주 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요.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8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6월 기준). 중기부는 2025년 지원금액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조윤 기자

식사비 한도 이제 5만 원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 첫 인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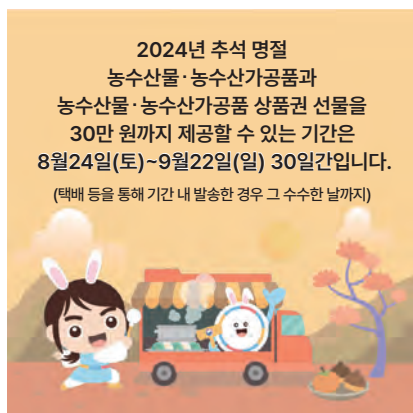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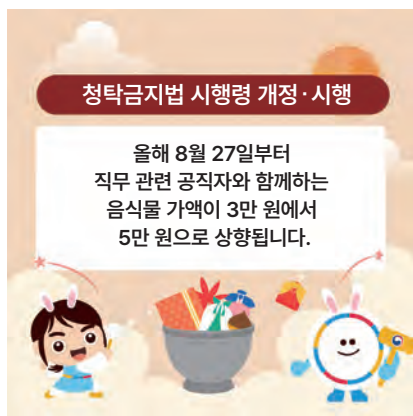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 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지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7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기간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강정미 기자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예산안

정부가 20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드림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2025년 정부예산 총지출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3.2%(20조 8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4년 지출증가율(2.8%)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에 묶어둬으로써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으로 짜였다. 내년 대내외 경제회복의 흐름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구체적으로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2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도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역시 6조 6000억 원 증가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1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털어내는 지

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포인트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며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말까지 GDP 대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공공주택 공급 25만 호… ‘비아파트’도 확대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 해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키워드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을 다양화한다. 빌라 등 비아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값이다. 해당 기금 적립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특성상 현재세대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한다. 순수 재정활동 결과만 보여주는 차원에서 나라살림의 성적표로 활용된다.

677조 4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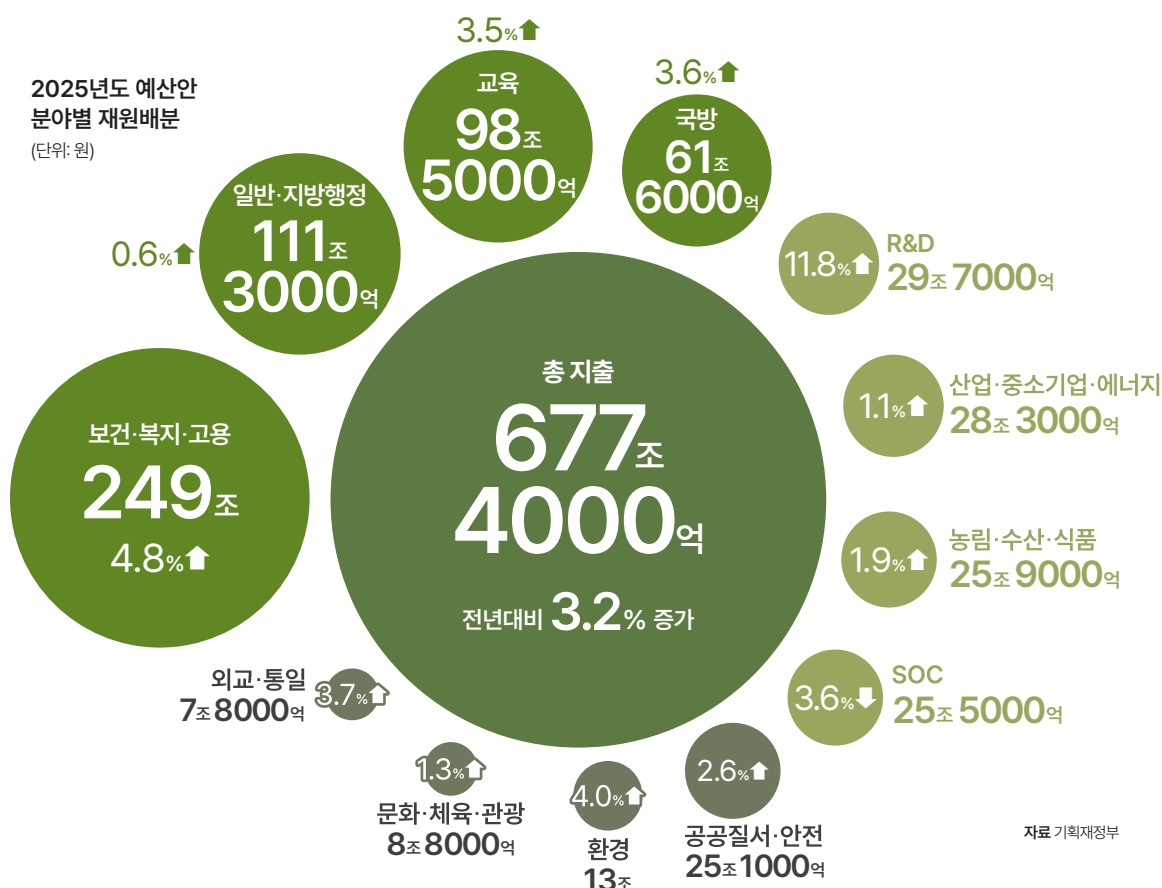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집중 투자

파트 공급도 2년간 16만 호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형식으로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도 힘쓴다. 아파트 대비 낮은 선호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어 정부는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연간 생계급여액을 인상하는 데 약 20조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월간 급여

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생계급여액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앞선 5년(2017~2022)간 평균 인상액 47만 원과 비교해 세 배나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도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



2025 예산안 투자 중점 분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경제활력 확산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연 35만 원을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한다. 연간 3000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확대하는 데 948억 원을 투입한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새롭게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아동의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 월 100만 원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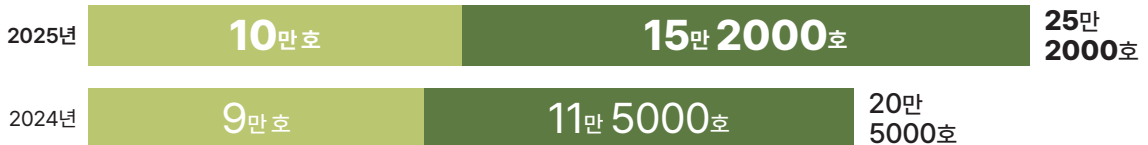
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7월 도입됐다.

R&D 예산 증액 전환... ‘3대 게임체인저’ 키운다

다음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비용경감-매출신장-재기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 및 연장 기간 확대(최대 5년) 등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공공분양·임대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공급

■ 공공분양 ■ 공공임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계획을 2025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2년간 16만 호 공급한다.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주택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공적개발원조(ODA)로 국익 창출

자료 기획재정부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뒷받침하고 e커머스사와의 협업, 상권발전기금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나아가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특화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재가지원에도 힘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R&D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분야에서는 초격차 선도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범죄, 기후변화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도 3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 확산을 위해선 원전·방산·콘텐츠 등 세계 분야의 펀드를 신설한다. 먼저 7월 대규모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생태계용자 1500억 원도 함께 공급한

다. 방산 분야도 수출 확대에 맞춰 K-방산 수출펀드 400억 원을 조성하는 한편 중소 방산기업의 부품 수출에 77억 원을 지원한다. 전 세계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K-푸드와 K-뷰티 산업을 연계 수출하는 전략도 세웠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더펀드를 조성하고 8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한류콘서트를 개최한다. 또 K-콘텐츠를 주축으로 한 해외박람회를 확대해 해외진출을 뒷받침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복원에 5년간 20조 원

국가 미래 준비의 핵심인 '저출생' 대응의 세 축은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집약된다. 우선 일가정양립 지원 차원에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대폭 인상한다. 또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와 동료가 함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80만 원→120만 원)하고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한다.

자녀돌봄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

초격차 선도기술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뜻하는 말로 글로벌 산업에서 최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보안 등을 초격차 선도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에 '초격차 기술 특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의료인들이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의사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학금, 수련비용, 거주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과 하나뿐인 전공의 필수과목을 내년부터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등 8개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0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늘리겠다.”

통해 해소한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출산부부의 주거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료 복원하는 데 5년간 국가재정 20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만 2조 원을 투입,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및 수당을 지원하고 의대중원에 따른 교수·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소아과 하나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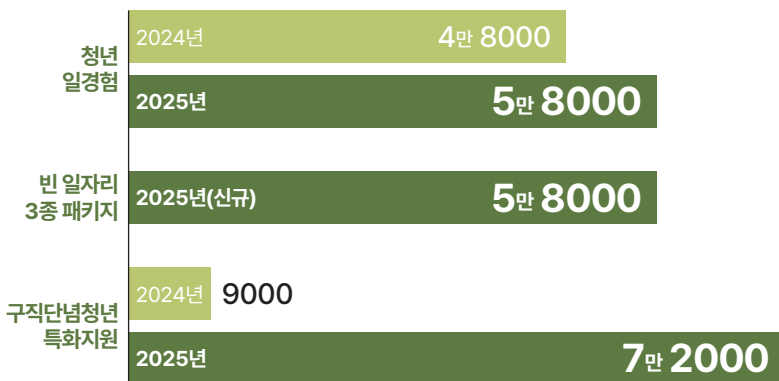
인 전공의 필수과목을 내년부터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등 8개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0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붕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복원에는 약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수술 역량을 높이고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필수의사제’를 새로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의 지원책이 두루 담겼다. 특히 정부는 일경험 확대와 구직단념청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하고 구직단념청년 취업프로그램(5~25주 이상)을 1만 2000명에게 제공한다.

한편 8000억 원을 들여 내년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 2.2%)로 대출이

청년일자리 특화지원 (단위: 명)



신생아특례대출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임신·입양 포함)에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실행 기간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포인트(P)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P 우대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컫는다. 최근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몰·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급여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일가정양립과 돌봄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 뉴시스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급여 상한

150만 원 → 250만 원
2024년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20일
2024년 2025년

육아휴직 동료지원금 2025년 (신규) 20만 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지원구간을 9구간까지 늘려 150만 명을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 발굴 체계를 마련해 사회복귀 지원에도 힘쓴다.

병장 봉급 '165만 원→205만 원' 인상

안전한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최근 잇따른 전기차 폭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 3000기에서 9만 5000기로 네 배 이상 크게 확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총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AI 영상·음성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일 예정이다.

병봉급 인상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병장 기준 165만 원이었던 병봉급이 205만 원으로 오른다. 월급여 150만 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합한 액수다. 아울러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지원을 집중한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를 유지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

은 3만 원씩 정액 인상한다. 국립묘지 묘역은 지금보다 9만 5000기가량 확충하고 지방보훈회관은 3곳을 새로 짓는다.

외교 분야에서는 2025년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올린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6조 7000억 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ODA를 확대하고 그린·보건·디지털 분야 ODA를 강화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 ODA 등을 통해 기업 진출을 함께 지원하고 해외봉사단을 통한 청년 교류도 늘려나간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 운용방향과 관련해 “복잡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K] 조윤 기자

추석 민생안정대책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회복 빠르게

성수품 17만 톤 풀고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2배 올린다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 톤가량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여름 집중호우에 이어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 탓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수요에 대응해 20대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가 해당된다. 배추와 무는 추석 3주 전부터 하루 평균 700톤 공급해 모두 1만 2000톤을 공급한다. 이는 평소보다 2.2배 많고 전년보다 9.1%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700억 원 투입, 최대 60% 할인 판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늘려 각각 1만 5700톤, 1만 4300톤을 공급한다. 9월 말 만료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양파와 마늘도 비축물량을 활용해 평소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린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1.4배 많은 9만 톤으로 늘리고 수산물에는 오징어·명태·참조기 등 정부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내용·사용방법·할인혜택

구분	구입처	사용방법	할인율	한도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	쇼핑몰 누리집 할인쿠폰 발급	20%	업체별 2만 원(주 단위 한도 갱신)
오프라인	마트	구매·계산시 자동 할인(회원가입 필요)		
전통시장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선할인 구매	농축산 30%, 수산 20%	농축산 3만 원, 수산 4만 원(기간 내 1회)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행사	시장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현장 환급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기간 내 1회)

* 수산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은 전통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온라인몰에서도 활용 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늘려 각각 1만 5700톤,
1만 4300톤을 공급한다.
9월 말 만료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8월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추석 선물 세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과 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부는 성수품의 할인 판매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한다.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의 경우 정
부 지원 할인 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이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고등어 등 수산물
은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
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농
할·수산물대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 20%, 농축
산물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고 10만 원 상당의 농할 상품권을 3만 원 저렴
한 7만 원에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지난해보다 85곳 늘어난 234곳이다.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고령층 대상 할인 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60% 이상 확대해 총 58억 원을 투
입한다.

범부처 물가안정 TF 운영, 가격·수급 동향 점검

정부의 할인 지원 외에도 전국 하나로마트·농협몰·수협
마트 등을 통해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50% 싸
게 판매한다. 한우·쌀·전복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 중심의

민생선물세트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 세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 전담반
(TF)을 통해 매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하겠
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
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통관 수요가 증가하는 9월 2~18일에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며 성수품의 신
속한 반입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 기간 성수품 및 선물세트의 가격을 조사해 공
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
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추석맞이 할인행사 계획도 정
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유한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축제 먹거리 정보
도 공개한다.

‘역대 최대’ 43조 원 자금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 원, 보증 3조 9500억 원 등 신규자금 42조
96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자금공급
보다 2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추석 전후로
2조 700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
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9월 15~18일) 교통수단 할인 및 면제

교통수단	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철도	KTX·SRT 역귀성(30~40%)·가족 동반석 할인,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상품 이용 시 50% 할인 * 승차권 10% 우선 할인+관광지 방문 인증 시 40% 할인쿠폰 제공(23개 지방자치단체)
	항공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무료
	선박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 및 주차비 무료

주차장	초·중·고교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
-----	--

교통정보	추석 특별교통대책(9월 13~18일)을 마련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증편
------	--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 사진 뉴스사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 조건을 기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도 추진한다.

추석을 계기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공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히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영세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에 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햇살론 유스' 규모 1000억 원 확대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액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최대 100만 원의 재대출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서 73억 원을 동원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용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늘린다. 체불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시행한다. 티몬·위메프 등 쿠폰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채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 쌀 5만 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의 가스요금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 소비 증가분 20% 공제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의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 원으로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9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개인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2024년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

입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도록 특례도 추진한다.

세일 이벤트도 연이어 연다. 9월 동행축제, 9~10월 가을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행사를 10월까지 진행한다. 추석 전 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지자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을 5만 명 추가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9월 13~18일 고속철도(KTX·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해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철도여행상품 이용 시 50% 싸게 판매한다.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은 물론 초·중·고교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K]

서경리 기자



“웰컴 투 파리!” 감동 드라마가 다시 시작됐다

한국 선수단 17개 종목 177명...
88서울패럴림픽 이후 최대 규모

“웰컴 투 파리!”

8월 28일 오후 8시(현지시간), 수영 선수 테오 퀴랭의 외침과 함께 2024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이하 파리패럴림픽)의 축포가 터졌다. 퀴랭은 6세 때 극심한 뇌수막염을 앓은 뒤 사지를 절단한 프랑스의 스포츠 영웅이다.

지난달 열린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진행된 파리패럴림픽 개회식은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선수들의 행진은 대회 심벌 ‘아지토스’가 걸린 개선문에서 출발해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콩코르드 광장까지 이어졌다. 168개국에서 온 4400여 명의 선수들은 프랑스 유명 DJ의 흥겨운 디제잉과 관중의 환호 속에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36번째로 입장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단은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으로 1988 서울패럴림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수로 나선 카누 최용범이 제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패럴림픽 선수



(왼쪽)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개회식에서 기수 최용범(카누)을 선두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 프랑스 공군 곡예비행팀이 샹젤리제 거리 상공에서 축하 비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단의 단복을 후원한 스파오가 제작한 기수복 남색 재킷에 태조 이성계의 곤룡포에 새겨진 오조룡을 오마주한 금박 자수, 조선시대 문무 고위 관리들이 외교사절이나 왕의 행차 시 착용했던 붉은 갓(주립)을 착용한 채 태극기를 흔들고 등장했다. 역사적 권위와 선수들의 기량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복장이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파리 패럴림픽은 22개 종목, 549개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조정, 카누, 탁구, 태권도 등에 출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이다.

선수단 응원부터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까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도 이뤄졌

다. 8월 27일 파리에 도착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한 ‘스포츠장관 연회(리셉션)’에 참석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파리를 찾아왔다. 지난 4년 동안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란 이름 아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힘찬 발걸음과 성취는 선수 개인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다”라며 격려했다. 또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기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경기 첫날인 8월 29일 수영 남자 접영 100m, 여자 접영 100m, 남자 평영 50m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보치아 남자 개인 경기를 관람했다. 또 8월 30일에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경기를, 8월 31일에는 태권도 남자 80kg 이하 경기와 탁구 남자 복식 경기를 관람하고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에 위치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 대한장애인체육회는 8월 28일~ 9월 6일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장애인스포츠포츠 역사와 문화, 관광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열린 '2024 파리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아래) 개회식 축하 공연은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사진** 뉴시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선수촌도 방문해 우리 선수단 상황실과 의·과학실, 선수식당 등을 살펴보고 선수단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파리 마레지구에 마련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부터 운영한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는 우리 선수단 지원과 한국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확장현실(XR) 스포츠 기기와 장애인체육 체험을 지원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또 한국에 유치한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와 한국 장애인체육 정책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파리패럴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 장관은 8월 30일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장,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을 만나 202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정기총회의 대한민국 개최와 우리 장애인체육을 알리고 각국의 장애인체육 현안 등을 청취했다. 또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교류하고 결속하는 패럴림픽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국의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했다. **K**

임연영 기자

엠펙스

8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펙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엠펙스가 아프리카 국경을 넘어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까지 확산되며 위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엠펙스(MPOX)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이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는데 2022년 5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당시 WHO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했다. 위기상황은 확산이 둔화되는 것을 공식 확인한 2023년 5월 해제됐다.

그렇게 잠잠해지는데 줄 알았던 엠펙스가 2023년 9월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인 엠펙스 1형(Clade 1)이 돌고 있는데 2022년 유행했던 2형(Clade 2)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아졌다. 문제는 엠펙스가 최근 월 8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아프리카 이외 대륙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파

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올해만 10명(8월 현재)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8월 12일 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엠펙스는 총 116개국에서 9만 9176명이 확진됐고 208명이 사망(2022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만 1만 5600명(사망 537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2023년 전체 확진자보다 많은 숫자다. 이에 WHO는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1차 국제보건위기상황은 2022년 7월 23일 선포, 약 10개월간 유지)하고 엠펙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도 신속하게 관련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내 엠펙스 발생 현황과 신고 감시체계, 진단, 백신과 치료제 비축 현황, 백신 접종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8월 21일자로 엠펙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이다.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엠펙스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엠펙스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선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 의사 등 전문가가 신속 대응하고 있다. **K**

임연영 기자

아프리카 국경 넘었다 올해 국내 10명 확진 검역감염병 재지정 8개국 검역 강화

엠펙스 예방하려면?

- 1 검역관리지역 등 엠펙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한다.
- 2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간다.
- 3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 4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는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질병관리청

몽골·아프리카에 의술 심는 김한겸 병리 전문의

괴짜 병리의사 몽골·마다가스카르 20년 봉사에서 배운 것

김한겸(68) 하나로의료재단 하이랩원장은 좀 특이한 의사다. 부캐(부 캐릭터)가 다양하다. 현미경 사진이라는 독창적인 사진 분야를 개척해 작품활동을 하는가 하면 난데없이 미라 연구를 해서 조선시대 질병사 연구에 기여했다. 세계 유일의 모자(母子) 미라인 파평 윤씨 미라가 잘 알려진 예다. 검도 7단으로 한국 의사 중 검도 최고단자이기도 하다.

그는 병리와 의사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34년간 후학을 가르치며 의학 전선을 지켰다. 병리과는 환자의 조직이나 세포를 분석해 어떤 질병인지 확인해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분야다. 때문에 병리와 의사는 환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질병과 싸우는 의사들이다. 병리과는 필수의료 분야에 속한다.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한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몽골, 아프리카 등을 다니며 촬영한 아름다운 풍광 사진으로 사진전을 여러 번 열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팔자 좋게 여행을 다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진 뒤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숨어 있다. 그는 몽골을 시작으로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11개 국가를 돌면서 의료봉사를 했다. 일반적인 의료봉사가 아니라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자궁경부암·폐암 진단법을

소개하고 의사들을 교육해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 3년 전 정년퇴임 후에는 보폭을 더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사비를 들여 몽골 의사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왜 몽골을 택한 건가?

2005년 몽골에서 열린 의학 세미나에 처음 초청받았다. 자궁경부암 검사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진단 시스템을 몽골 의료계에 소개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한 의사가 세포를 봐달라고 했다. 당시 몽골에 현미경이 서너 대밖에 없었다. 현미경이 있는 대학을 겨우 찾아 세포를 보니 시커먼 색으로 염색돼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배워온 염색 방식의 진단법이라더라. “염색법이 눈에 익지 않지만 폐암이다”라고 알려줬다. 2006년 또 초청을 받아 몽골에 갔다가 그 의사를 또 만났다. 그가 “당신이 맞았다. 환자가 외국에 나가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환자는 몽골에서 유명한 의사 가족이었다고 했다. 그 일을 계기로 몽골 의료계에서 내가 진단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몽골 의사들을 교육하는 ‘몽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몽골 프로젝트’가 뭔가?

몽골의 병리 의사들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다. 대한병리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와 함께했다. 2007년부터 10년간 했



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하이랩 원장은
2007년부터 몽골,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병리 의사를 육성하는 자원
활동을 해왔다. 벽에 걸린 액자(왼쪽)는
마다가스카르 병리학회에서 받은
감사장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는데 10년이 되니 몽골에 병리학회가 생기더라. 자궁경부암 검진법부터 가르쳤다. 자궁경부암은 우선 세포를 채취해 진단하는 과정이 다른 암에 비해 훨씬 쉽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진단 기구마저 없더라. 염색도 제대로 못했다.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다. 몽골에서는 그때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못하고 있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은 암인데 자궁경부암으로 죽는 몽골 여성이 많았다. 한국도 1980년대까지 그랬다. 검진하는 게 쉬워지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줄었다. 이제는 암종별 사망률 순위에서 자궁경부암은 10위 안에도 안 든다.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식의 자원활동을 했나?

그랬다. 아프리카 국가 중 11개 나라를 다녔는데 병리 의사가 다섯 명이 넘는 나라가 없더라. 진단을 거의 안 하고 있었다. 마다가스카르는 달랐다. 병리와 레지던트가 15명이나 있었다. 가르쳐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15년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년 동안 매해 방문해 자궁경부암 검진법을 가르쳤다. 의학 교재와 의료기도 기증받아 가져다줬다. 아프리카를 다니다 발견한 게 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말라리아나 에이즈(후천면역결핍증) 발병률은 줄어드는데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늘어나더라. 질병과 사회 상황이 다 연결돼 있다. 몽골에서 가르치며 쌓은 경험을 대한세포병리학회와 함께 마다가스카르에도 전했다.

한국가당 5년 이상씩 교육한 이유가 있나?

첫해는 일종의 소개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단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배운 후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병리 의사를 한국으로 데려와 병원에서 교육시키는 이유다. 몽골과 마다가스카르에서 병리 의사를 데려와 교육시켰다. 한국에서 배우고 들어가면 확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병리학의 맹주가 됐다. 우간다,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온다.

몽골 프로젝트는 이제 끝난 건가?

이제는 몽골 의료가 많이 발전했다. 대형 병원도 들어섰고 사립의과대학도 생겼다. 이제는 어떤 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세 가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는 폐암 치료다. 폐암을 몽골에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관련



김한겸 원장은 현미경 사진 작가로도 유명하다. 그가 직접 촬영한 현미경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해서 지난해 몽골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제 시작이다. 몽골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폐암이 세 번째다. 실제로는 발병률이 더 높는데 진단이 늦거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몽골 남성의 흡연율이 높을 뿐더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대기가 그리 좋지 않다. 폐암은 치료 예후가 매우 좋다. 진단으로 발견하면 수술로 종양을 떼어내면 된다. 항암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종양이 퍼져 있어도 유전자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

폐암 완치율이 높은 편인가?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 높아졌다. 예전엔 진단받고 2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5년, 7년을 넘겨 잘 산다. 치료약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 약을 몽골 의료진이 적절히 처방해 치료할 수 있게 되면 몽골 사람들이 의료비에 큰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몽골에서 암에 걸리면 의료비가 많이 드나?

암에 걸리면 대부분 몽골에서 치료받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다. 일단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단하기가 어렵다.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서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고 폐 조직을 일부 채취해 검사하는 생체검사도 해야 한다. 그런데 몽골에 생체검사를 할

“나의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는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한국의 의술도 선진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선진국이 됐으면 나눠야 한다.”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의사가 딱 한 명 있다더라. 어찌어찌 진단을 해도 문제다. 폐암이라고 진단하면 다 외국으로 나간다. 옛날 한국이 그랬듯 자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치료를 위해 한국이나 미국으로 나간다.

돈이 많아야 외국에서 치료받는 것 아닌가?

온 집안 사람의 돈을 모아서라도 외국으로 보낸다. 몽골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만약 몽골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암을 치료해 완치된 사례가 나오면 몽골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게 그거다. 폐암은 약물치료가 결국 답인데 약물치료를 몽골 병원에서 하게 되면 약값을 포함한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 폐암 진단 교육 외에도 두 번째로 ‘정도관리’ 사업을 소개했다. 검사와 진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10년 동안 암 진단법을 교육한 결과 시스템이 잘 정착했다. 그런데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정도관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세 번째로 바이오뱅크의 중요성을 몽골 의학계에 소개했다.

바이오뱅크가 무엇인가?

생물자원은행으로 몽골인의 혈액이나 침, 암 조직 등 유전자 정보를 다 모아놓는 곳이다. 지금부터 모아야 한다고 알려줬더니 몽골 정부 차원에서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2023년 7월 ‘몽골의 사계’란 제목의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스무 번 이상 몽골을 방문하며 촬영한 사진으로 꾸민 전시였다. 그는 작품을 판매해 생긴 수익금에 사비를 보태 30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었다. 몽골의 병리 전문의들을 위해서다.

3년 전쯤 몽골에서 특강을 했다. 강의 후 식사를 하는데 몽골의 병리 의사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몽골 사진으로 전시를 해 수익이 생기면 그

걸로 비행기 값을 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해 전시회에서 수익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몽골 의사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가?

과거엔 몽골에 병리 전문의가 없었다. 몽골 프로젝트를 10년 하면서 2년제 레지던트 코스와 함께 전문의가 생겼다. 몽골에 현재 병리 전문의가 68명이고 근무 중인 전문의는 47명이다. 그중 30세 이하가 약 30명이다. 이들 중 한국어나 영어가 가능한 전문의를 꼽아보니 7~8명이다. 매해 한 명씩 고려대 병원에서 두 달 동안 연수를 받기로 했다. 현재 대상자 선정 작업 중이다.

의료 봉사가 20년이 돼간다. 그 나라의 의사를 교육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원래 ‘병리과는 의료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리의가 봉사하면 확실하다’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현지에서도 ‘사나흘 교육하는 걸로 뭐가 되겠어’라며 비웃었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병리학을 키워나가던 시기에 선진국에 3일 혹은 일주일씩 가서 단기 교육을 받고 왔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교육 코스를 들으러 가기도 했다.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다.

몽골이나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모두 자비로 진행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는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한국의 의술도 선진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선진국이 됐으면 나눠야 한다. 몽골이나 마다가스카르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은 그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심어주고 싶다. 장기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도 몇십 년간 병리와 전문의로 봉직했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배운다. **■**

하주희 기자

한국 대표 된장 요리는 자장면? K-팝은 재정위기 돌파용?

대한민국 제대로 알리기 9개국 청년들이 뚝다

‘K-팝은 전쟁
후 한국의 재정
위기를 돕기 위해
발명됐다.’
(프랑스 A매체)

‘한국의 대표적인
양념 된장으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는
자장면이다.’
(베트남 B매체)

‘김치의
유통기한은
짧다.’(독일 C매체)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국의
국가상징 중
하나다.’
(아일랜드 D매체)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에 있다.’
(중국 E매체)

해외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우리도 모르는 새 한국에 대한 엉터리 정보가 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잘못을 바로 잡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있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다.

바로알림단은 외신기사나 외국 정부기관 누리집 등 해외에서 생산된 한국의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 수정하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홍보단이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외 청년 635명의 단원이 활동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바로알림단 선발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고 선발 인력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8월 13일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에서는 제17기 바로알림단 발대식이 열

렸다. 17기 단원으로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 총 35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교환학생, 한국어 강사, 통·번역가 등으로 다양하다. 대부분 글로벌 교류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간 오류 1만 1000여 건 바로잡아”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바로알림단이란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17기 신규 단원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무이젯(18) 씨는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 진취적인 한국문화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6기에 이어 17기 단원으로 선발

된 한국 국적의 시지원(20) 씨는 “바로알림단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역할이라는 걸 되새기며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들은 12월까지 바로알림단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 사전 등에서의 올바른 정보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에 대한 해외 인식과 시각, 정보의 정확성과 보완점 등을 조사한다.

바로알림단 단장을 맡은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지난 12년간 바로알림단 단원 635명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1만 1000여 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며 “문체부는 한국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려는 바로알림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8월 13일 서울 중구 코시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활동한 16기 단원 34명은 태권도와 일본의 무술인 가라테의 혼동, 독일의 구텐 베르크가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설명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정보 오류 242건을 발굴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알리고 한지·한옥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홍보에 앞장섰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오류 정보를 시정하기 위해 2016년 9월 시작됐다.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

하며 오류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이를 통해 연평균 한국 관련 오류 정보 신고 1700여 건을 접수했고 2024년 6월 기준 오류 약 5000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주로 신문·방송·출판물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도·동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논쟁을 현안으로 다뤘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유통의 채널과 매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내 오역이나 구글 플랫폼 내 정보 오류 등 한국과 관련한 오류 정보의 생산 경로와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반인들의 오류 신고에 기반한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과 함께 한국 관련 오류 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

사하는 바로알림단을 선발·교육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요도가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대표 오류사례와 대응 논리 등을 모은 사례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넷플릭스 등 세계적 기업과 해외 언론매체 등에 배포해 올바른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채수희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은 “한국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잘못된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단체를 비롯한 우리 국민과 함께 올바른 정보 유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

강정미 기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팬덤 분야는?

K-팝 아이돌
45.4%



팬덤 활동은 일상 “누군가의 팬이에요” 77%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나요?

(MZ세대 참여자 507명 대상, 단위: %)

있다 77.7

없다 22.3

한 번쯤 누군가의 열렬한 팬이 돼본 적 있나요? 팬심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해요. K-팝 스타부터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등 넓은 범위에서 팬덤 문화를 경험하고 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하죠. MZ세대는 실제로 어떤 분야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또 팬덤 활동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팬덤 문화에 대한 MZ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K-팝 아이돌을 좋아해요” 45.4%

설문 조사 결과 팬덤 문화가 MZ세대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77.7%가 ‘현재 팬덤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단연 ‘K-팝 아이돌(45.4%)’이에요. 그다음으로는 ‘스포츠’가 13.0%로 2위를 차지했어요.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서 야구팬, 축구팬, 농구팬 등 다양한 종목의 열성팬을 쉽게 만날 수 있죠. 이외에도 ‘드라마&영화(4.1%)’, ‘뮤지컬(3.9%)’, ‘애니메이션(3.6%)’, ‘웹툰·웹소설(3.4%)’ 등 다양한 분야의 팬덤도 존재해 MZ세대의 취향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론 11.6%가 ‘과거에는 팬이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거나 6.9%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관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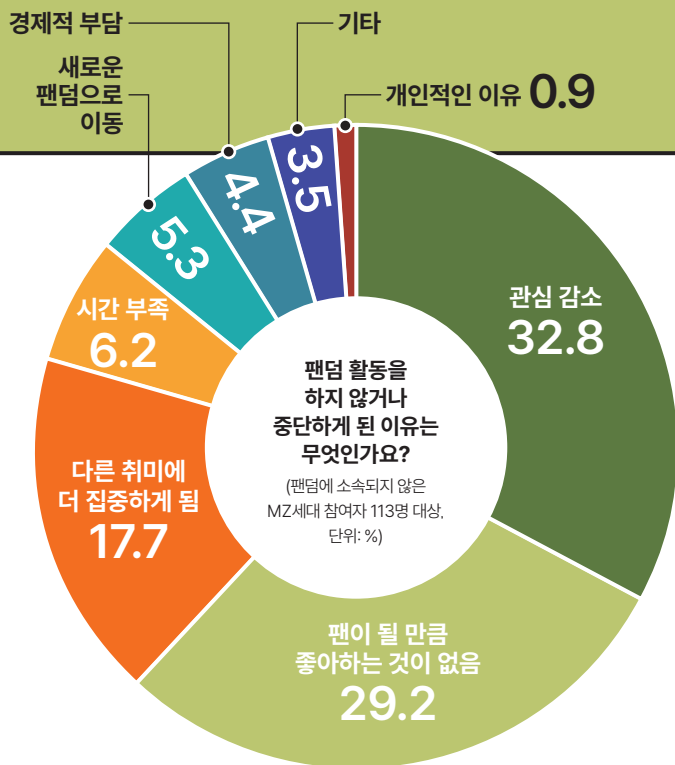
(32.8%)’, ‘팬이 될 만큼 좋아하는 것이 없음(29.2%)’, ‘다른 취미에 더 집중하게 됨(17.7%)’ 순으로 답했어요. MZ세대는 단순히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한 가지 취향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요.

하지만 팬이 되면 꽤 오래 그 마음을 간직하기도 해요. 현재 팬덤 활동 중인 사람들 중 54.0%가 5년 이상 팬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팬덤 활동을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와 인간관계, 그 속에서 찾은 소속감과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팬들의 열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팬덤에 대한 시선은 ‘열정과 호기심 사이’

팬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팬덤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을 함께 살펴봤어요. 먼저 팬덤에 속하지 않은 MZ세대의 응답을 보면 59.3%가 ‘팬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어요. 이는 ‘따라가기 힘든 열정에 대한 부러움’과 ‘열정 자체에 대한 존중’이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반면 ‘왜 그렇게까지 몰두하는지 궁금하다(26.6%)’,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느낀다(9.7%)’는 답도 있었어요.

한편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MZ세대의 응답은 46.0%가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다’라고 답했어요. 자신들의 팬덤 활동



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MZ세대가 팬덤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 번째로 팬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가장 많은 대답이 '좋아하는 콘텐츠 감상(44.2%)'과 '스트레스 해소(34.8%)'였어요. '동료 팬들과의 교류(7.1%)'나 '팬덤 내에서의 인정과 소속감(2.8%)'은 의외로 낮은 비율을 보였어요.

팬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답변이죠. 팬덤에 참여하는 이유가 꼭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팬덤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79.2%로 압도적이었어요. '소속감(2.3%)'이나 '자아실현(1.3%)'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팬덤 활동 2명 중 1명 "굿즈 가격 너무 비싸"

MZ세대가 어떻게 팬덤에 참여하고 소비하는지 팬덤 참여 방식부터 소비패턴, 불만사항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어요. 팬덤 활동

어피티가 **507**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8월 16~22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팬덤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팬덤 분야는 무엇인가요?

- ① K-팝 아이돌 ② 프로그래밍 ③ 뮤지컬 ④ 드라마&영화 ⑤ 스포츠
⑥ 애니메이션 ⑦ 웹툰·웹소설 ⑧ 인플루언서
⑨ 과거엔 팬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⑩ 관심이 없다 ⑪ 기타

팬덤 활동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관심 감소 ④ 새로운 팬덤으로 이동
⑤ 다른 취미에 더 집중하게 됨 ⑥ 개인적인 이유(예: 건강, 가족 등)
⑦ 팬이 될 만큼 좋아하는 것이 없음 ⑧ 기타

팬덤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①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낀다 ② 왜 그렇게까지 몰두하는지 궁금하다
③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느낀다
④ 언젠가는 팬덤에 소속되고 싶고 궁금하다 ⑤ 기타

해당 팬덤에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4년 ④ 5년 이상

팬덤 활동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요?(중복 선택 가능)

- ① 온라인커뮤니티 참여 ② 팬미팅 및 콘서트 참여 ③ 굿즈 구매 및 수집
④ 팬아트 및 팬픽션 창작 ⑤ 스트리밍 및 동영상 시청
⑥ 정보 공유 및 토론 ⑦ 기타

팬덤 활동에 한 달에 얼마나 소비하나요?

- ① 1만 원 미만 ② 1만~3만 원 ③ 3만~5만 원 ④ 5만~10만 원
⑤ 10만~20만 원 ⑥ 20만 원 이상 ⑦ 금액을 계산해본 적 없음

팬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있나요?

- ① 많이 사귀었다 ② 몇 명 사귀었다 ③ 아니오

팬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 ① 동료 팬들과의 교류 ②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 감상 ③ 스트레스 해소
④ 빠르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 얻기 ⑤ 팬덤 내에서의 인정과 소속감
⑥ 자기 표현 및 창작 기회 ⑦ 기타

팬덤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 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 ② 소속감 ③ 창의성 ④ 정보 공유
⑤ 상호 존중 ⑥ 자아실현 ⑦ 기타

팬덤 관련 활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① 긍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무관심하다 ④ 잘 모르겠다

팬덤 문화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글로벌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② 기부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직접 기여한다
③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④ 공공 여론을 형성하고 압력을 가한다
⑤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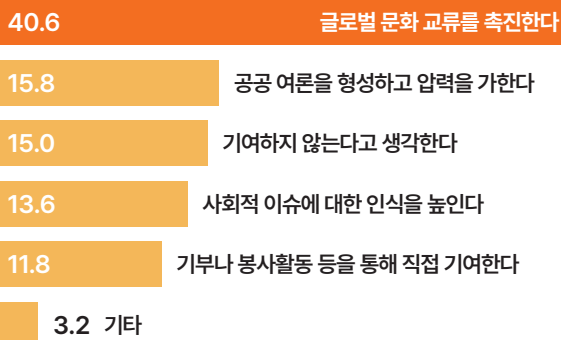
팬덤 활동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요?

(팬덤에 소속된 MZ세대 참여자 394명 대상, 중복 선택 가능, 단위: 명)



팬덤 문화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MZ세대 참여자 507명 대상, 단위: %)



참여는 '스트리밍 및 동영상 시청(341명)'처럼 온라인 활동이 가장 많았어요. 최근에는 '프롬', '위버스' 같은 구독형 온라인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좋아하는 스타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팬 활동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지만 '굿즈 구매(244명)'나 '팬미팅 및 콘서트 참석(240명)' 같은 오프라인 활동도 적지 않았어요.

팬덤 활동에 대한 한 달 소비금액은 '1만 원 미만(24.1%)'이 가장 많았지만 '5만~10만 원(15.0%)' 및 '10만~20만 원(8.1%)'처럼 고액 소비도 상당했어요. '금액을 계산해본 적 없음(17.2%)' 처

럼 비용과 상관없이 몰입하는 팬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팬덤 활동인 굿즈 구매와 관련해서는 '굿즈의 가격이 너무 비쌌'(285명)'이라는 불만이 가장 많았어요. 그 외에도 '랜덤 제 공으로 원하는 굿즈를 얻기 어려움(174명)',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141명)' 등의 불만도 있었어요. 실제로도 팬들을 대상으로 '사재기'를 유발하는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팬덤 활동이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 40.6%

팬덤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는 '글로벌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40.6%)'는 답변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Z세대 연 님은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과 팬덤의 국제적 교류를 언급하며 “K-팝 스타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누리소통망(SNS)으로 소통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팬덤이 문화 교류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찡 님은 “팬심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 아티스트나 문화의 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이게 결국 국가 간 문화 교류로 이어진다고 봐요”라고 설명했어요. 이밖에도 '팬덤이 공공 여론을 형성하고 압력을 가한다(15.8%)',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13.6%)'는 답변도 있었어요.

하지만 '팬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15%)'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M세대 햄 님은 “팬덤은 결국 취미를 공유하는 집단일 뿐이에요.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면 책임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팬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서 집단행동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팬덤이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긴 어려워요”라고 말했어요.

팬덤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현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에 팬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동시에 팬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건전하고 긍정적인 팬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한 시대니까요. **K**

혹시 나도 우울증?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로 자가검진 해보니

의욕이 없고 밥맛도 없다. 이따금씩 머리가 멍하다. 흥미·재미·의미를 잃고 무기력·죄의식·공허감에 시달린다.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어 '마음의 감기'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기도 한다. 우울증 환자의 1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조기진단이 필수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 우울하긴 한데 병원을 찾을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서다.

이제 카카오톡만 있으면 누구나 휴대전화로

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통해서다.

우선 카카오톡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이후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자가검진이 시작된다. 챗봇은 9개 질문을 던진다. 의욕 및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극단적인 생각 등의 여부를 묻는다. 결과는 ▲우울증상 없음(0~4점) ▲가벼운 우울증(5~9점) ▲중간 정도 우울증(10~19점) ▲심한 우울증(20~27점) 등 4단계로 나뉜다.

직접 진단해보니 '5점'이 나왔다. '잠들기 어렵



보건복지부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

“최근 몇 주간 줄곧 ‘회사에서도 집에서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던 중 자가검진을 알게 됐다. 자가검진 절차가 까다로웠다면 진료의 첫발을 떼기 어려웠을 것이다.”

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항목에서 2점,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에서 2점,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에서 1점을 합산한 결과다.

챗봇은 ‘가벼운 우울증’이라며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추천했다. 그러면서 앞서 입력한 주소지와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기관 정보를 알려줬다. 총 8군데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떴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mentalhealth.go.kr)로 이동하면 된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챗봇 9단계 질문에서 20점 이상을 받으면 ‘심한 우울증’이다. 22점이 나왔다는 위경맘 정은혜(42) 씨는 “최근 몇 주간 줄곧 ‘회사에서도 집에서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던 중 자가검진을 알게 됐다”면서 “챗봇이 안내해 준 인근 병원을 찾아 정식 상담을 받을 생각이 다. 자가검진 절차가 까다로웠다면 진료의 첫발을 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책임

이 서비스는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민생토론회(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주)카카오헬스케어가 협업해 만들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비스 기반인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약관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를 맡았다.

우울증 검진도구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PHQ-9’다. 저작권자인 한창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의 협조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향후 수요를 고려해 불안증, 조기정신증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된 검진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8월 9일 열린 마음건강 챗봇서비스 개회식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 마음건강도 일상적인 점



카카오톡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채널을 추가한 후 우울증 자가검진을 누르면 서비스가 바로 시작된다.

검을 통해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하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 서비스는 정보기술(IT)시대에 맞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라면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6월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위원회의 추진 계획은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 ▲100만 명 심리상담 ▲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위험징후 발견 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치료 ▲직업 트라우마센터 10곳 확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면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

박지현 기자

우울증 검진도구(PHQ-9) 문항

지난 2주 동안 다음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나요?

(단위: 점)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0	1	2	3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0	1	2	3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0	1	2	3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0	1	2	3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0	1	2	3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됐다는 느낌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0	1	2	3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전부절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0	1	2	3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0	1	2	3
점 수	/ 27			

* 본 설문은 우울한 정도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들이 확정된 진단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정확한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뭇즈’ 상품기획팀 김미경 팀장

굿즈? 뭇즈! MZ도 외국인도 오픈런 “매력적인 문화유산 젊은 박물관으로”

“평일인 데다 개학을 해서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방학이나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예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외국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대학생, 어린이 등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북적이는 방문객들을 바라보며 김미경 팀장이 건넨 말이다. 2016년 무렵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합류해 8년째 ‘뭇즈’ 상품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이 ‘핫플’로 떠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뭇즈는 국립박물관이 기획하고 생산·판매하는 상품으로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국 13곳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그중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418만 285명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연도별 관람객 수’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관람객 수(341만 1381명)보다 약 22.5% 늘어난 것으로 1945년 개관 이래 최다 수치다.

뮤지엄숍은 박물관 방문객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들르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뭇즈에 MZ세대가 열광하면서 ‘힙트래디션(hip+tradition·전통문화를 힙한 감성으로 즐기는 것)’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홍도의 ‘평안감사향연도’ 속 취객 선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 세트’는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대

란템’이고 K-팝 아이돌 그룹이 소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는 뮤지엄숍의 대표 상품이다. 이밖에도 자개소반 무선충전기, 고려청자 무선이어폰 케이스, 금동대향로 미니어처 등 히트작이 줄줄이고 새로운 상품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위트 있는 상품들은 젊은 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결과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난해 매출 분석을 보면 뭇즈 구매자의 62%가 2030세대다. 2023년 매출액은 149억 원으로 전년(117억원) 대비 27%나 상승했다. 내놓는 상품마다 반응이 좋고 사업 규모도 커지면서 상품기획팀 업무의 규모도 커졌다.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 전반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존 상품기획팀에 오프라인을 담당하는 판매1팀, 온라인숍과 특판을 담당하는 판매2팀, 물류팀 등으로 늘어났다. 4개 팀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피드백 이슈 등을 점검하면서 뭇즈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작년 뭇즈 매출액이 대단했다. 올해 흐름은 어떤가?

성장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외국인도 눈에 띄게 많다. 와주는 분들이 많다 보니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온라인 반응도 좋다. 취객선비 소주잔처럼 예약 판매하는 품목도 있다 보니 큰 변수만 없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기획팀
김미경 팀장은 '뮤즈'와 함께 좋은
K-콘텐츠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1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418만 285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22.5% 늘어났다. 2 취객선비 3인방 변색 막걸리잔. 3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인 '뮤즈'는 2022년 출시 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면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

특히 MZ세대가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독특해서 좋다고 하더라.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유물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는 차별성에도 디자인도 예쁘다는 반응이다.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담았다는 의미까지 있으니 더 좋아해주는 게 아닐까? 키링·무선충전기·에어팟 케이스 등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협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기분은 어떤가?

뿌듯하고 고맙다. 상품을 보면서 우리나라 유물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구매한 후에 후회하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길 바라면서 상품 기획도 그 포인트에 맞추려고 한다. 일회용품처럼 쓰고 없어지면 안되지 않나.

'뮤즈'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키우게 됐나?

전에는 '박물관을 방문했으니 기념품을 의무적으로 사야겠

다'는 분들을 충족시키는 상품 위주였다. 2022년 뮤즈 출시를 계기로 박물관에 안 오는 분들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상품 개발 방향을 바꿨다. 뮤즈라는 브랜드가 생기니 마케팅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누리소통망(SNS)·유튜브 홍보 계정을 만들 때 효율적이다. '박물관에서 파는 상품',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이라고 설명하기 복잡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좋다.

뮤즈 성공을 위해 어떤 전략이 있었나?

실용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념품 위주의 상품이 아니라 뭐라도 쓰임새가 있는 걸 만들고 싶었다. 그때부터 생활소품을 만들었다. 노트, 다이어리, 연필 등 문구류가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 사용도가 낮다. 그런 아이템의 비중을 줄이고 작은 트레이, 파우치, 양산 등 생활소품 위주로 만들었다. '평소 필요한 품목인데 여기 와봤더니 있네? 그런데 디자인이 좋네?'라는 마음이 들면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 유물을 재해석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욕심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양이나 디자인, 이미지 활용이 가능한 소스 개발에 힘을 쓰려고 한다.”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 세트’처럼 재미요소를 잡은 것도 주효해 보인다. 재미가 첫 번째는 아니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이왕이면 실용적이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반영돼야 한다. 뮤지엄숍에 가보면 “너무 귀엽다”, “재미있다”, “예전에는 칠푼었는데 요즘은 화사하고 볼 게 너무 많다” 등 주고받는 대화들이 들리는데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이 가장 좋다. 그 변화를 퀄리티에서도 느낀다. 뭇즈는 디자인뿐 아니라 소재 등 질이 좋은 편이다.

뭇즈는 박물관에서 직접 만드는 자체 상품과 외부 수탁 상품이 있다. 자체 상품은 아무래도 완성도가 조금 더 높다. 수탁 상품은 좋은 지원작이 많아서 품질이 낮은 건 애초에 안 뽑는다. 우리가 인증해서 ‘뭇즈’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 품질이 별로라는 피드백을 들으면 안되니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MZ세대 이외 다른 세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나?

예전에는 40대가 되면 기성세대로 분류했는데 요즘은 나이 구분이 점점 없어진다. 나이에 따라 취향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대가 아니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위트 있고 재미있는 예쁜 아이템을 만들고 있다. 최근 어린이들을 위한 도블 상품을 출시했다. 보드게임의 일종인데 유물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 시리즈가 출시됐다.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그들은 유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보다 원본 자체를 좋아한다. 유물 원본을 중시하면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들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예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5월에 저렴한 아이템을 많이 개발했다. 키링, 스티커 등 가벼운 아이템을 많이 만들었다.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꾸로 아예 비싼 것을 찾는 분도 많다. 하이엔드 소비를 중시하는 분들은 나전, 옷칠 제품 등 제대로 만든 상품을 원한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니 원하는 가격과 취향이 천차

만별이다.

온라인숍을 보니 공모작이 많은 것 같다. 의도적으로 늘린 건가?

잘 팔린다고 입소문이 나서인지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다. 신규 지원자가 많아졌고 공모작 수준도 높다. 5~6년 전만 해도 비슷한 디자인이 많아서 새로운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대가 된다.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모전을 두 번 여는데 작년 상반기 경쟁률이 900대 1이었다. 심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반기에는 서류 전형이 하나 더 생겼다. 올해는 1300대 1이었다. 그중 130~140종을 엄선했다. 아이템이 참신한지, 차별화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선정한다.

해외 박물관·미술관 등의 벤치마킹 사례도 있나?

그보다는 새로움을 위해서는 뻔하고 단순한 기획보다 다른 산업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몇 년 전 핀란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핀에어 기내에서 마리메코 냅킨을 주더라. 그게 너무 좋았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좋은 자산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휴대전화 케이스인 케이스티파이가 좋은 사례가 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다. 소스 개발을 박물관에서 하고 케이스티파이가 상품 제작과 판매를 한다. 우리 소스를 가지고 지식재산권(IP)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 사례라서 의미가 있다.

뭇즈는 론칭 후 성과도 거뒀고 인식도 좋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새로운 목표가 궁금하다.

소장가치가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지만 더 나아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박물관에 유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욕심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양이나 디자인, 이미지 활용이 가능한 소스 개발에 힘을 쓰려고 한다. K-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국립중앙박물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K

임연영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텍스트 힙’에 빠진 2030이 달려가는 곳 ‘지혜의 숲’ 가보셨나요?

파주출판도시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9월 6~8일
이 일대에서 '2024
파주페어 북앤컬처'가
열린다.



‘텍스트 힙’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텍스트 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개성 있다는 뜻의 은어 ‘힙(hip) 하다’를 합한 신조어다.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독서가 디지털 시대에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취향을 공유하는 놀이의 하나로 재발견되고 있다. 텍스트 힙이 유행처럼 번지는 책의 계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 여행지이자 책의 고향인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찾았다.

기증 도서 13만여 권이 채운 ‘지혜의 숲’

8월 25일 찾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뿐 아니라 젊은 층이 유독 눈에 띄었다. 1층 서가 ‘지혜의 숲’에서 높은 층고를

가득 채운 책장 사이를 탐험하며 책을 고르는 연인, 책을 쌓아두고 보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친구와 함께 지혜의 숲을 찾았다는 대학생 이다혜(22) 씨는 “전자책 위주로 보다가 디지털기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니 다시 종이책을 보게 됐다”며 “종이책은 완독하고 난 뒤 책의 여운이 더 길게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측은 “기존 가족 단위 방문객 외 젊은 층이 확실히 늘었다”며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세대가 찾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출판도시의 심장부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만㎡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출판문화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연구와 교육, 공익성 문화행사 개최,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2007년 개관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지혜의 숲'에 있는 강익중 작가의 설치 작품 '쥘른 파고다'.

중심에 있는 지혜의 숲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 센터를 대표하는 곳이자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다. 2014년 내부 벽면을 서가로 조성해 가치 있는 책을 한데 모아 보존·보호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꾸민 개방형 독서문화공간이다.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23만여 권의 책 중 13만여 권을 지혜의 숲에서 만날 수 있다.

‘지혜의 숲 1’이라고 쓰인 묵직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압도적인 규모의 서가가 맞이한다. 책으로 빼곡하게 채운 8m 높이의 책장은 학자, 지식인, 연구소가 기증한 도서 등이 채우고 있다. 기증자가 아끼던 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 이 거대한 서가는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서가 안쪽 강익중 작가의 설치 작품 ‘쥘른 파고

다(Cologne Pagoda)’를 지나 ‘지혜의 숲 2’로 이어 가는 동선이다. 출판사 기증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소규모 전시공간 ‘갤러리 지지향(紙之郷)’, 출판도시 굿즈(기념품)와 책을 판매하는 서점 ‘북소리책방’ 등이 들어서 있다. 출판사 기증 도서들은 분야별 분류가 아닌 출판사별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의 흐름과 출판사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다. 바깥은 여전히 여름인 주말, 편하게 계단에 앉아 책을 읽는 어린아이들부터 돋보기를 착용하고 독서하는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책 읽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당장이라도 책을 꺼내 독서에 동참하고픈 의욕이 샘솟는다.

‘책과의 동침’ 라이브러리스테이 ‘갤러리 지지향’

지혜의 숲을 나와 3관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스테이 ‘갤러리 지지향’으로 가볼 차례다. ‘책은 기



다양한 출판사와 유통사, 박물관, 미술관에서 기증한 도서를 볼 수 있는 '지혜의 숲 3'.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전시를 여는 '갤러리 지지향'.

억을 저장할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자는 문화가 담긴 파노라마이자 영감이 가득 찬 예술이다'... 천천히 독서 관련 명언들과 조우하며 갤러리 지지향으로 들어서면 책과 커피 향이 훅 밀려드는 듯하다. '종이의 고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의 주인공은 책이다. 객실에서는 TV 대신 책 읽기를 하며 사유와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투숙하지 않더라도 1층 라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독서는 물론이고 도서 출간 기념회, 저자 강연, 낭독회, 영화제 등 출판사 또는 문화 예술 관련 단체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복합문화공간 '문발살롱'으로 운영한다. 유리창 너머 늦여름 초록의 숲을 앞에 두고 카페 'LEEPARK'의 핸드드립 커피와 와인을 맛보며 책의 향기에 빠져보기에 최적화돼 있다. '텍스트 힙'을 즐기는 젊은 층 사이에 독서 성지로 소문나면서 주말엔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폭신한 소파에 기대 책을 펼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지혜의 숲 가까이엔 활판인쇄의 역사를 배우고 활판주조기나 인쇄기기를 직접 볼 수 있는

'활판인쇄박물관'이 있다. 활판 책갈피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부터 책 만들기 체험, 캘리그래피 동판인쇄 액자를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활판인쇄 관련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유료)을 진행한다. 3500만자 활자가 전시된 '활자의 숲'에서 글자를 찾아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문선인쇄 책갈피 만들기' 체험(1만 1000원)이 인기다.

2024년 1월엔 '파주출판도시 역사자료관'도 개관했다. 출판·축제·교육·생태도시로서 파주출판도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입구에서 회원가입 후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면 무료 입장,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0원의 입장료가 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에 자리한 현책방 '보물섬'도 지나칠 수 없는 코스다. 운이 좋다면 전집이나 베스트셀러를 반값에 '득템'할 수도 있다.

생태여행·건축투어 코스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심학산 자락에서 갈대밭강으로 이어지는 곳에 자리 잡았다. 2000년 10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병윤 건축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 정보센터

주소
경기 파주시 회동길 145
문의
(031)955-0050

가가 설계한 건물은 건축미를 인정받아 2004년 제14회 김수근건축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는 위치에 따라 수중 도시와 지상 전망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파주출판도시 건축투어도 해볼 만하다. 프리즈커상을 수상한 두 작가, 알바로 시자의 ‘미메시스 아트뮤지엄’과 세지마 가즈요의 ‘도서출판 동녘’을 비롯해 미국 건축상 복합건물 부문 수상작인 ‘도서출판 레인보우’ 등 건축상을 받은 10여 곳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머지않은 곳에 모여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800여 종의 생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운이 좋다면 갈대새깅을 따라 거닐다가 자연관찰 책에서나 봤던 멸종위기 동물과 조우할지도 모른다.



활판인쇄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활판인쇄박물관’.

9월 6~8일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개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대표 축제인 ‘파주 북소리’를 포함해 2023년에만 100여 회의 축제와 행사를 진행해온 문화 플랫폼이기도 하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선 가을 문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를 연다. K-북, K-콘텐츠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유통·소비되고 있는 출판·콘텐츠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준비

한 글로벌 마켓이자 복합문화 페어다. 가족 뮤지컬 ‘정글북’, 유명 연극배우들의 낭독 공연 등 도서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갈라쇼와 공연, 프린지 쇼케이스, 버스킹, 북마켓, 아트마켓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3일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축제 기간 명필름아트센터 등 출판도시 주요 공간들도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자세한 축제 일정은 파주페어 북앤컬처 누리집(www.pajufair.com)을 참조하자. **K**

글·사진 박근희 객원기자

경기도의 또 다른 로컬100

부천아트벙커B39

경기 부천시 삼정동의 ‘부천아트벙커B39’도 ‘로컬100’ 지역문화공간에 선정된 곳이다. 부천 중동 신도시 개발 때 쓰레기 처리 시설인 ‘삼정동 소각장’으로 문을 열었다가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과 다 배출 사건인 이른바 ‘다이옥신 파동’으로 2010년 문을 닫았다. 이전까지는 하루 2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했던 산업시설이다. 폐쇄 후 수년간 재정비 끝에 2018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부천아트벙커B39는 일반 전시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클래식·만화·영화·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돼왔다. ‘B39’란 이름은 소각장 벙커의 높이가 39m인 것에서 비롯됐다. 재정비를 거쳐 2023년 4월 재개관 후 영화 ‘헤어질 결심’과 ‘승리호’ 등에 주무대와 배경으로 등장하며 주목받았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경복궁 별빛야행’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갑니다

‘궁, 바퀴를 달다’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 방문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실시한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올해는 지난 방문 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했다.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와 가족센터 등 18곳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는 궁궐 활용사업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복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장고마마와 음식(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즐긴다. 이어 국악공연 관람과 궁중복식 입어보기 체험을 통해 마치 궁에 와 있는 듯 궁궐을 보다 생동감 있게 경험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국가유산청



전시 버려지는 황금사과로 만드는 추억여행

‘버려지는 쓰레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 쓰레기는 황금사과가 되었다.’ 김순화 작가가 폐자원과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조합해 전북 군산시의 관광지와 풍경을 표현했다. 회화와 조형 등 업사이클링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덧대어 새로운 가치가 담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간 9월 27일~10월 13일

장소 전북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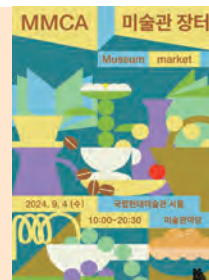


연극 간과 강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낡은 빌라에서 남편 O와 함께 사는 중년 여성 L이 겪는 기이한 하루를 다뤘다. 집안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싱크홀을 발견하고 인어로 변한 첫사랑과 재회하는 등 초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우리 삶의 궁허에 관해 이야기한다. 2020년 제14회 차범석희곡상 수상작으로 국립극단 프로젝트션을 통해 처음 관객과 만난다. 주인공 L 역은 송인성, 남편 O 역은 강현우, 소년 역은 최정우, 첫사랑 역은 성원이 각각 맡았다.

기간 9월 27일~10월 19일

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행사 MMCA 미술관 장터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친환경 미술관 마켓을 연다. 2019년, 2023년 오픈 당시 하루 1만여 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서울 아외마당에서 ‘더 예술적으로 더 지속가능하게’를 주제로 열린다. 제철 농산물과 친환경 먹거리, 각종 수공예품과 디자인 제품, 예술 관련 서적 등을 판매한다. 이수지 그림책 작가의 북토크, 아티스트 듀오 김치앤칩스의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장터가 열리는 날 서울관의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간 9월 4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4 한강노들섬클래식

가을밤 한강 한 가운데서 발레와 오페라를 즐긴다



가을밤,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클래식 향연이 펼쳐진다. 서울문화재단은 야외 클래식 공연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토·일요일 오후 6시 노들섬에서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전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오페라 '카르멘'을 전막 공연한다.

우선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10월 12~13일 무대에 오른다.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발레 안무로 이뤄진 '고전 발레의 교과서'로 불린다. 주인공 오로라 공주 역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무용수 홍향기와 솔리스트 이유림이 맡는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무용수 이동탁과 콘스탄틴 노보셀노프가 데지레 왕자 역으로 출연한다. 이외에 유니버설발레단과 와이즈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소속 70여 명의 무용수가 무대에 오른다.

야외 공연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중간휴식을 없애 공연 시간을 95분으로 단축하고 무대 디자인 변경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로 무대로 꾸밀 예정이다.

총감독을 맡은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은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지구력과 절제력이 요구되는 작품"이라며 "기상 한계를 극복하고 작품 속 배경을 입체감 있게 연출하기 위해 LED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19~20일에는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무대에 오른다. 집시 여인 카르멘과 그녀를 둘러싼 사랑과 배신, 비극적 운명을 그렸다. 메조소프라노 정주연과 테너 존노가 각각 남녀 주인공 카르멘과 돈 호세 역을 맡았다.

'카르멘' 역시 야외무대의 한계를 감안해 공연 시간을 100분으로 단축했다. 관객이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를 둘러싸는 형태의 무대를 고안했다.

김숙영 오페라 연출가는 "야외 오페라는 공간적 한계가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객이 작품이 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고민하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작품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두 공연 모두 무료이며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9월 11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1인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좌석은 비지정이다.

서경리 기자



저자 김재홍(황금알)

도서 탈북 32년, 두만강 넘어 시드니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에디와 그의 삶에 응원해온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의 30년에 걸친 동행 취재기다. 모든 것을 걸고 두만강 여울을 건너온 대학생의 32년 탈북 다큐멘터리가 담겼다. 실존 인물인 주인공 에디를 중심으로 3인칭 전지적작가시점의 소설 형식으로 풀었다.



저자 이옥선(이야기장수)

도서 즐거운 어른

"나는 지금을 최대한 즐긴다." 경남 진주에서 교사로 3년간 일하다 결혼과 함께 전업 주부가 된 유별나고 유쾌한 76세 이옥선 작가의 에세이다. 노년은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라고 믿는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대충',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당부한다. **K** 서경리 기자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여름 햇살이 아주 강할 때 피는 배롱나무꽃은 산천초목이 모두 초록일 때 만개해 더욱 돋보입니다. 주로 붉은색이며 가끔은 흰색도 보입니다. 꽃이 석 달 이상 오래 피어 백일홍으로 불리다가 배기롱나무로 변했다가 지금의 배롱나무가 됐다고 해요. 배롱나무꽃이 피는 여름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합니다.

우향화 서울 송파구

공감 칭찬합니다!



769호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를 통해 고종의 비밀도장 '황제어새'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조선의 임금, 고종의 뜻을 세계 여러 나라에 펼치고자 도왔던 험버트 박사의 행동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문화유산과 역사를 많은 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호 충남 아산시



768호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민·관의 합작품, 즉 '팀코리아'의 작품이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선두주자임을 증명한 계약입니다. 아울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계약도 진행할 수 있는 신토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동은 대전 유성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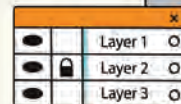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11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Adventurous Table

한식 브랜딩 로고 디자인 공모전



접수기간 24. 8. 16.(금) - 9. 22.(일) 24:00

심사내역 최우수상 1명 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공모내용 한식 브랜딩 키워드
(Adventurous Table)
로고 디자인 개발

우수상 1명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상금 50만원

장려상 2명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상금 10만원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심사기준 창의성 및 독창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등

접수방법 이메일 hansiklogo@hansik.or.kr
자세한 내용은 한식포털
(<https://www.hansik.or.kr>) 참고

문의 한식진흥원 한식확산기획팀
| 02-6320-8431
| hansiklogo@hansik.or.kr



**추석 맞이
나눔 캠페인**
8월 19일~9월 30일

우리 이웃 지킴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이웃들 사업에 참가해 주세요!

좋은이웃들 사업이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민·관 협력 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좋은이웃들』 모금액은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 후원 참여 방법



후원 홈페이지
(www.thenanum.net)
접속 또는 QR코드 스캔



후원 참여 클릭 후
좋은이웃들 펀드 선택



후원정보 입력 및
후원 희망지역 선택



주변 동료에게
나눔 계좌 갖기 알려주기

사랑나눔실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중심 나눔사업입니다.